

2018년 3월 27일 강원 2018-3-2호

보도참고자료

(강원 금융경제포커스 2018-4호)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
주십시오.

제 목 : 2017년중 강원지역 금융기관 여수신의 주요 특징

(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)

문의처 : 기획금융팀 과장 안지훈

Tel : 033-258-3295 Fax : 033-258-3239 E-mail : gangwon@bok.or.kr

"한국은행 강원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/gangwon>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"



한국은행 강원본부

강원 금융경제포커스

한국은행 강원본부

<제2018-4호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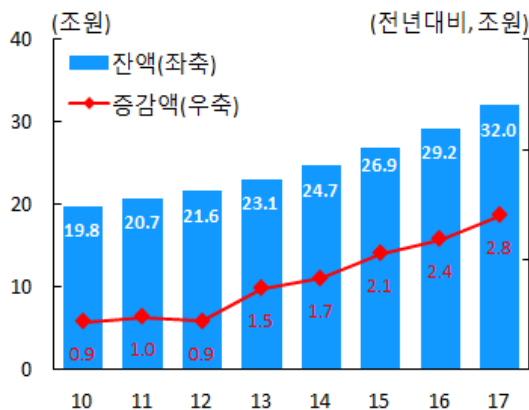
2017년중 강원지역 금융기관 여수신의 주요 특징

(작성자 : 기획금융팀 안지훈 과장, 258-3295)

I. 개 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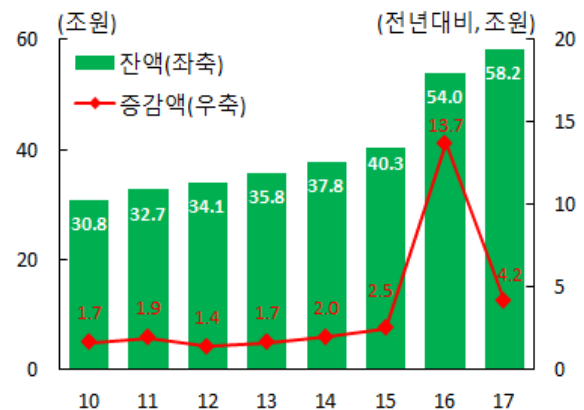
- 2017년말 도내 금융기관(예금취급기관 기준)의 여신 잔액은 32.0조원으로 2016년말 대비 2.8조원(+9.6%) 늘었으며 수신 잔액은 58.2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4.2조원(+7.7%) 증가
 - 여신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(2016년 +2.4조원 → 2017년 +2.8조원) 되었으나 수신은 일부 공공기관의 원주이전 효과 소멸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(2016년 +13.7조원 → 2017년 +4.2조원)
 - 강원지역의 여·수신 증가율 모두 전국의 여신(7.0%) 및 수신(6.3%) 증가율을 상회

금융기관 여신



자료 : 한국은행

금융기관 수신



자료 : 한국은행

Ⅱ. 여 신

1 가계대출

(전국보다 높은 증가세)

□ 2017년말 강원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18.3조원으로 2016년말 대비 11.0%(1.8조원) 증가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증가율(+7.3%)을 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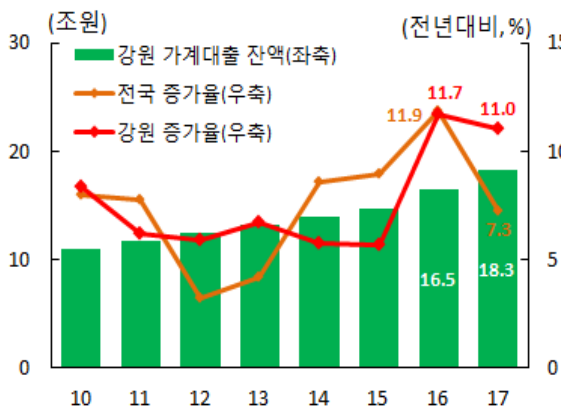
- 전국의 경우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정부대책* 등으로 확대폭이 축소 (+96.3조원 → +65.9조원)된 반면 강원지역은 부동산 경기호조와 수도권 중심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대체수요 유입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 (+1.7조원 → +1.8조원)

* 2017년중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통한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를 위해 6.19 부동산 대책, 8.2 부동산대책, 10.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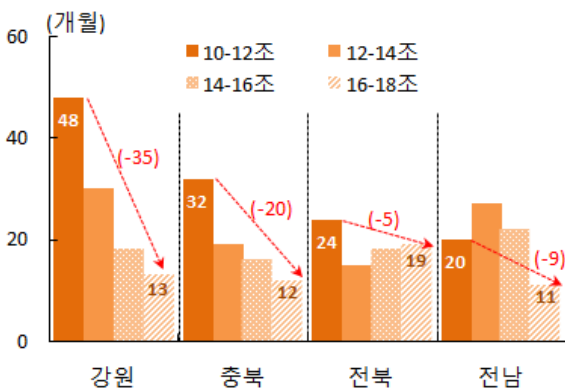
□ 2017년중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6년에 비해 낮아졌으나(+11.7% → +11.0%) 일정규모 증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단축

- 도내 가계대출 잔액이 10조원('08.10월)에서 12조원('13.10월)으로 2조원 늘어나는 데 48개월이 걸렸으나 16조원('16.10월)에서 18조원('17.11월)으로 증가할 때는 13개월로 단축

금융기관 가계대출



가계대출 증가 속도^{1) 2)}



주 : 1) 구간별로 2조원 증가에 걸린 개월 수
2) 지방8개도 중 2007~17년 중 가계대출이 해당구간 증가한 지역 기준

자료 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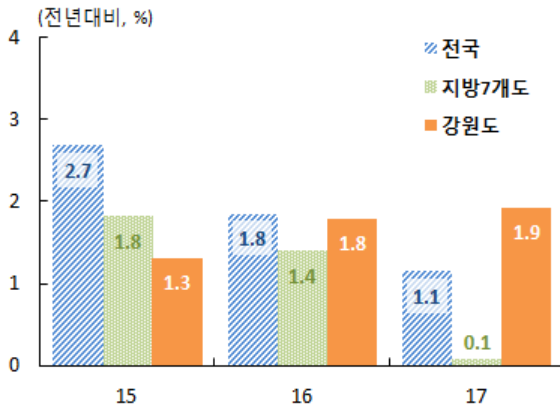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은행

(부동산 경기가 양호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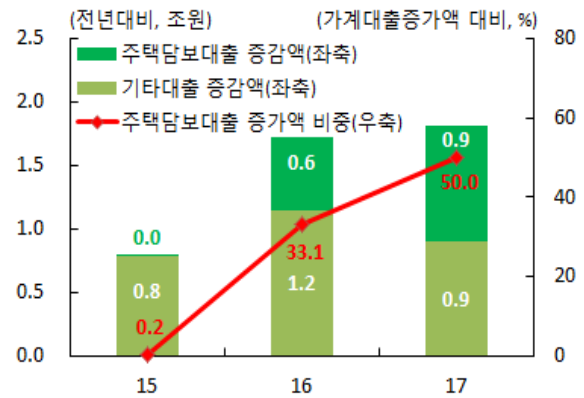
□ 도내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 (+0.9조원)이 2016년(+0.6조원) 보다 확대

○ 가계대출 증가액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16년에 비해 큰 폭 상승 (33.1% → 50.0%, +16.9%p)

주택가격 상승률



가계대출 증감 및 주택담보대출 비중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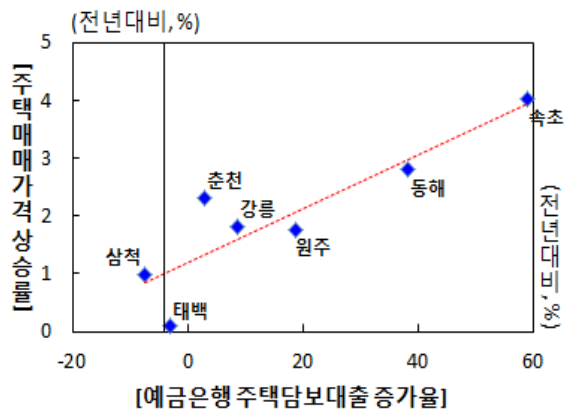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감정원

주 : 1) 가계대출증가액 대비 비중
자료 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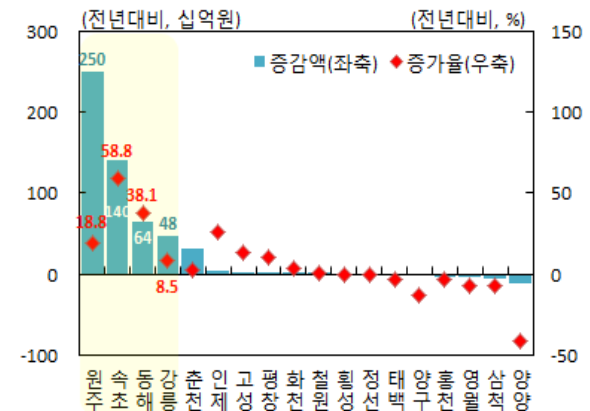
○ 지역별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속초, 동해, 원주, 강릉 등 4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 4개 지역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98.1%를 차지

주택가격¹⁾ 및 주택담보대출²⁾ 증가율(2017년)



주 : 1) 월별 주택매매가격지수 공표지역 기준
2) 예금은행 기준
자료 : 한국은행, 한국감정원

주택담보대출¹⁾ 증감 및 증가율(2017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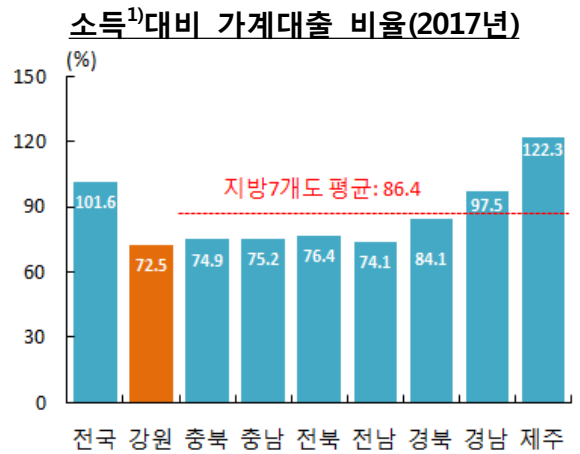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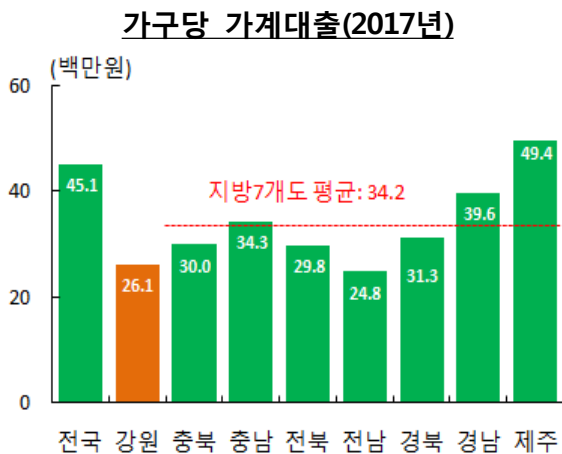


주 : 1) 예금은행 기준
자료 : 한국은행

(가구당·소득대비 가계대출이 늘었으나 절대규모는 타 지역을 하회)

- 2017년말 도내 가구당 가계대출 잔액은 2,609만원으로 전년말대비 9.8% 상승하였으나 절대규모는 전국(4,505만원) 및 지방 7개도(3,417만원)를 하회
- 도내 처분가능소득*(개인부문 총처분가능소득 기준) 대비 가계대출 비율도 2016년 대비 4.0%p 상승한 72.5%를 기록하였으나 전국(101.6%) 및 지방 7개도 (86.4%)보다는 낮은 수준

* 2017년 지역별 소득은 2015~16년중 증가율을 이용하여 추정



주 : 1) 개인부문 총처분가능소득 기준, 2017년 소득은 2015~16년 증가율을 이용 추정

자료 : 한국은행,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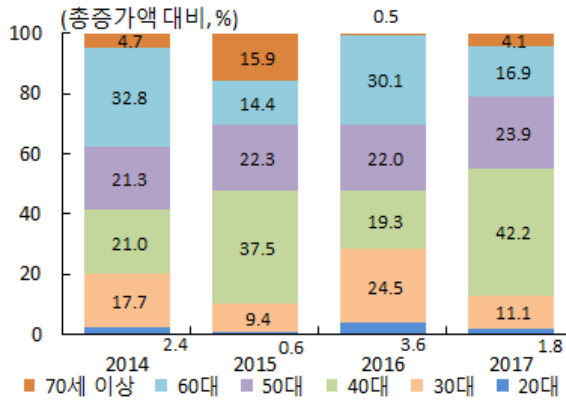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은행, 통계청

(차주 특성별*로는 40대, 고신용등급의 우량차주를 중심으로 증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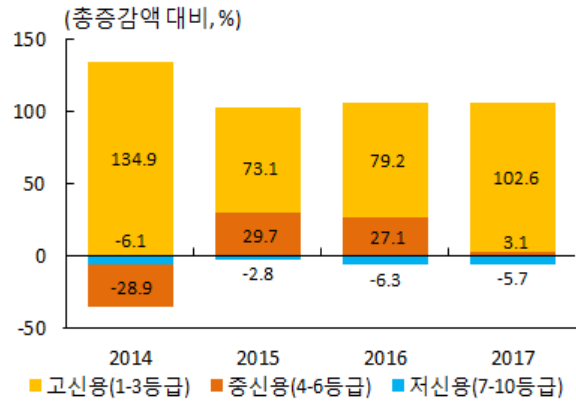
* 차주 특성별 분석에는 「한국은행 가계부채DB」를 이용

- 2017년중 도내 가계대출은 연령별로는 40대, 신용등급별로는 고신용등급 (1~3등급) 차주를 중심으로 증가
 -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 중 40대 비중이 42.2%로 2016년(19.3%) 대비 22.9%p 증가
 - 신용등급별로도 저신용등급(7~10등급)의 가계대출이 감소한 반면 고신용 등급(1~3등급)은 전체 증가액을 상회하는 규모로 증가

연령별 가계대출 증감액 비중



신용등급별 가계대출 증감액 비중¹⁾



주 : 1) 신용등급 정보가 있는 차주 기준
 자료 : 한국은행 가계부채DB

자료 : 한국은행 가계부채DB

-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다중채무자의 대출 비중은 전체 가계 대출의 62.8%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
- 다중채무액 중 고신용등급 차주 비중(50.1%)은 2016년 대비 4.7%p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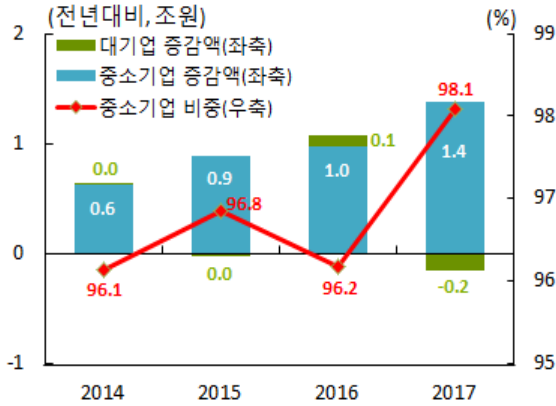
2 기업대출

(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)

- 2017년말 강원지역 기업대출 잔액은 10.9조원으로 2016년말 대비 12.5%(+1.2조원) 증가*
 - * 전국(8.6%) 및 지방 7개도(12.1%)보다 빠르게 증가
- 대기업대출은 감소(-0.2조원) 하였으나 중소기업 대출이 1.4조원 늘면서 증가를 주도
 -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98.1%로 전국(81.1%) 및 지방 7개도 (93.4%)를 상회
-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(+0.6조원)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(+0.6조원)의 기업 대출이 모두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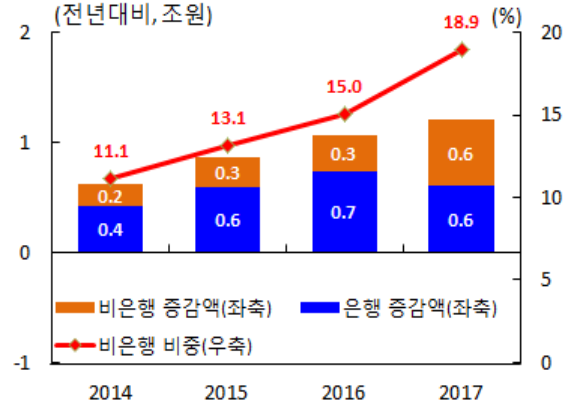
- 특히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이 크게 증가(2016년 +0.3조원 → 2017년 +0.6조원)하면서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.9%로 상승

대·중소기업 대출 증감 및 비중¹⁾



주: 1) 잔액 기준 비중
자료: 한국은행

은행 및 비은행 기업대출 증감 및 비은행 기업대출 비중¹⁾



주: 1) 잔액 기준 비중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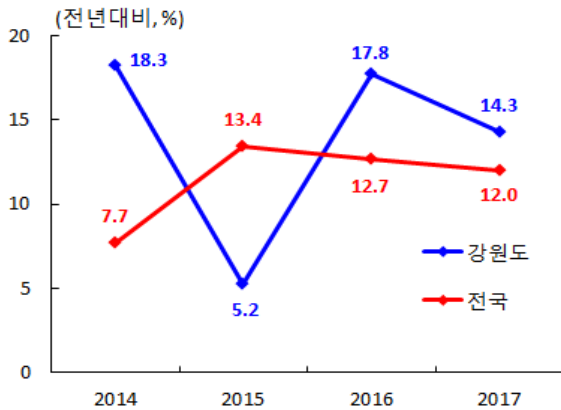
(중소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대출*은 증가속도가 둔화)

* 사업체 운영 등을 목적으로 차입한 대출로 「한국은행 가계부채DB」를 이용하여 분석

- 2017년중 도내 개인사업자대출은 전년대비 14.3% 늘면서 2016년(17.8%)에 비해 증가속도가 낮아졌으나 2016년에 이어 전국(12.0%) 보다는 빠른 증가세를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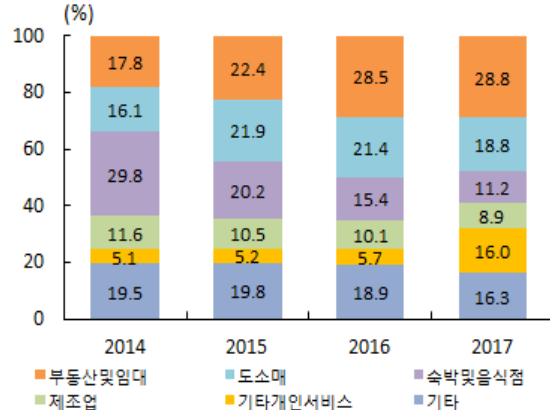
- 업종별로는 부동산 및 임대업, 기타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

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



자료: 한국은행 가계부채DB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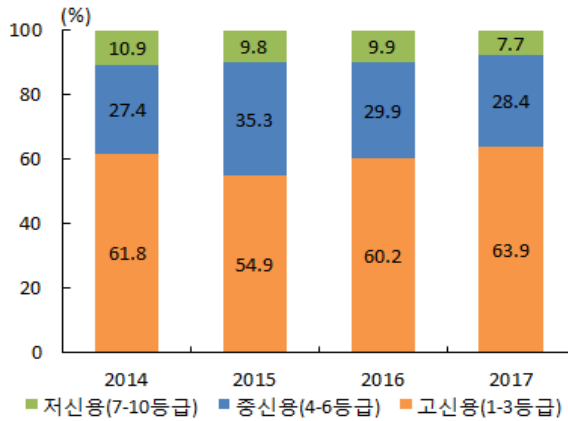
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비중¹⁾



주: 1) 잔액 기준
자료: 한국은행 가계부채DB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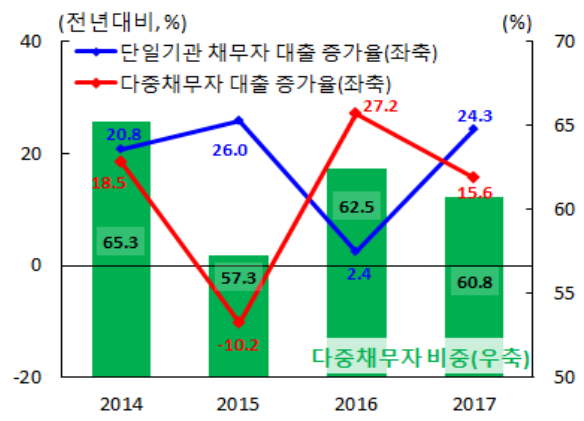
- 신용등급별로는 고신용등급(1-3등급) 차주의 대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개인사업자대출액 대비 비중이 2016년 대비 3.7%p 상승
-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전년대비 15.6% 늘어 2016년(27.2%)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

신용등급별 개인사업자대출 비중¹⁾



주: 1) 잔액 기준 비중
자료: 한국은행 가계부채DB

다중채무자 증가율 및 비중¹⁾



주: 1) 잔액 기준 비중
자료: 한국은행 가계부채DB

Ⅲ. 수 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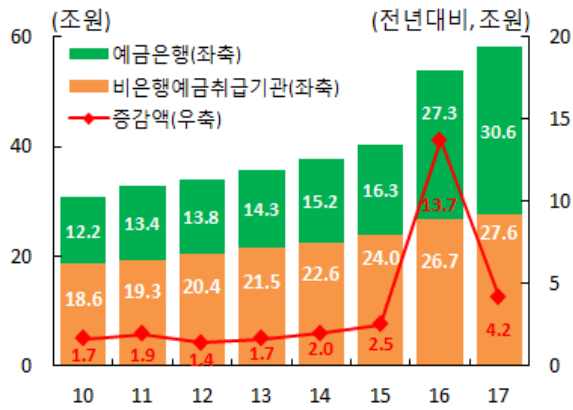
(기관별로는 예금은행, 지역별로는 원주지역의 수신 증가폭이 크게 축소)

- 2017년말 강원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전년말대비 4.2조원 늘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운영자금 유입*으로 수신이 크게 늘었던 2016년(+13.7조원)에 비해 증가폭이 대폭 축소

* 2016년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원주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이들 기관의 운영자금도 강원도 소재 예금은행 점포로 이전 유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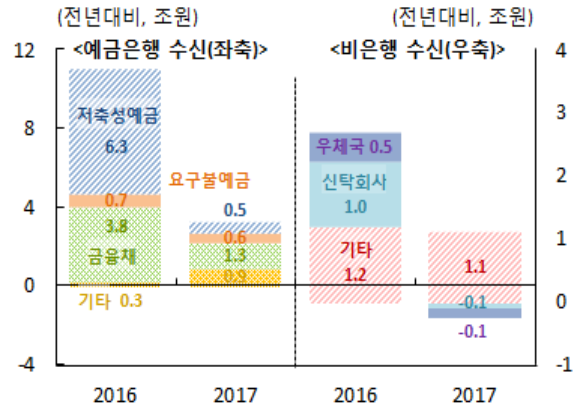
- 예금은행(2016년 +11.0조원 → 2017년 +3.3조원)은 공공기관의 주요 자금운용 수단인 저축성예금(+6.3조원 → +0.5조원)과 금융채(+3.8조원 → +1.3조원)를 중심으로 축소
-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신탁회사 및 우체국 수신이 줄면서 증가폭이 축소 (+2.7조원 → +0.9조원)

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 잔액



자료 : 한국은행

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 증감액



자료 : 한국은행

□ 지역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운영자금 유입효과가 소멸된 원주지역 수신 증가액이 1.4조원에 그쳐 2016년(+11.0조원)에 비해 크게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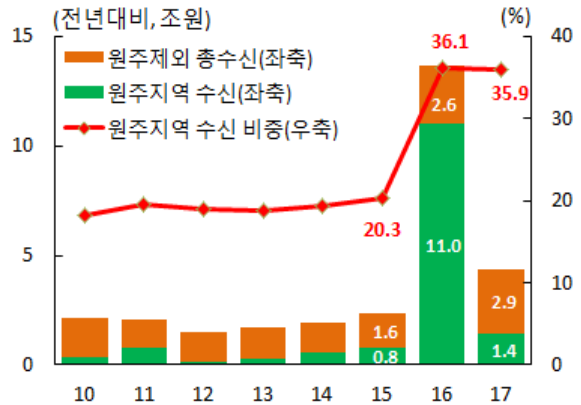
○ 원주를 제외한 도내 수신(+2.6조원 → +2.9조원)은 2016년에 이어 증가를 지속

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운영자금¹⁾

기관명	운영자금	이전일
한국관광공사	3,326억원	2015. 3.
한국광물자원공사	1조 2194억원	2015. 7.
한국광해관리공단	3,774억원	2015. 9.
건강보험심사평가원	4,370억원	2016. 1.
도로교통공단	2,805억원	2016. 2.
국민건강보험공단	62조 7,374억원	2016. 3.

주 : 1) 2017년 지출예산 기준
 2) 2015, 2016년중 이전완료 공공기관
 자료 : 한국은행

지역별 수신¹⁾ 증감 및 비중²⁾



주 : 1) 자산운용사 제외
 2) 강원도 전체 수신잔액 대비 비중
 자료 : 한국은행